

정부는 지난 6월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국민의정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전체 100대 국정과제 중에 농림분야는 6개과제다.

국정과제의 선정기준은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라는 국정이념을 토대로 건강한 국민정신의 함양, 경쟁자들의 촉진,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직 인수위 100대 과제,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 지시사항과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정과제는 어려운 현실과 고난속에서도 21세기의 경제강국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는 국민정부의 시대적 사명에 따라 장미빛 청사진 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제 중심으로, 추상적인 방향제시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수치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 중심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선정 취지에 맞추어 앞으로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이들 국정과제는 실천과제별로 구체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반기별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점검 평가하게 된다.

**복잡한 유통구조 대폭 축소한다**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통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임협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일반소매상의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설치, 금융접촉 직판코너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

**국민의 정부**

**'농림부문 국정과제' 알아본다**

조합법 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유통 과정에서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금년에 새로 개정되기 시작한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개방화시대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WTO 체제하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농정의 국제화가 가속화되어 농림업도 국제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기술, 경영, 수출 등에 중점을 둔 시장지향의 저비용 고효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화된 농업시설의 이전 규제를 완화하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지방 농정활성화를 위해 차등보조와 인센티브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 ① 복잡한 유통구조의 대폭 축소
- ② 개방화시대 농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 ③ 쌀자급유지 양곡유통은 시장중심으로 추진
- ④ 생활여건 개선으로 가고 싶은 농촌 건설
- ⑤ 산림자원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공급
- ⑥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인 형태로 전환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해 나간다.

기존 도매시장은 형식경매, 불법점포임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상장수수료 하역비 인하 등 유통비용 절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규격농산물이 대량으로 출하되도록 지원하고, 농산물물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하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19일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중인 유통개혁위원회에서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금년 6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그동안 제기된 농정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새 농정의 틀을 정립하고 효율성에 기초한 중앙기 농촌발전대책을 올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업농촌발전대책을 확정하고 또한, 농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21세기 대비 농업농촌관련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 비농업부문의 자본·기술·인력의 참여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정보화를 확대하고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농림종합정보망 확충과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경영의 정보화 추진 및 농업인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농산물가공공장운영 내실화 대책 수립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운전자금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품목별 수출전문생산단지지정을 확대하고, 수출업체와 생산농업인과의 계약생산체제를 활성화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및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애로 상담실 운영 확대 및 내실화 하고,

농산물수출업체에 원료농산물 구매자금지원 등 자금지원과 농산물수출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관측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시장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최신 무역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정추진 조직을 농업인에 대한 봉사기능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 운영체제를 농업인의 관점과 경영효율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인, 협동조합, 정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농촌투융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농업지원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촌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하여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저리융자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현재 사업별 품목별로 개별 지원하던 것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적량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쌀자급 유지, 양곡유통은 시장중심으로**

농림부는 점차 불안해지는 국제식량 수급여건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쌀자급기반확보를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2004년까지 논면적 110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지역등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산지의 다목적인 활용을 유도하며, 농촌용수 개발 10개년 계획(95~2004) 및 경지정리사업 효율적 추진등 쌀생산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한, 쌀농업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기영농규모화사업을 내실화하고, 다수확 고품질품종을 지속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5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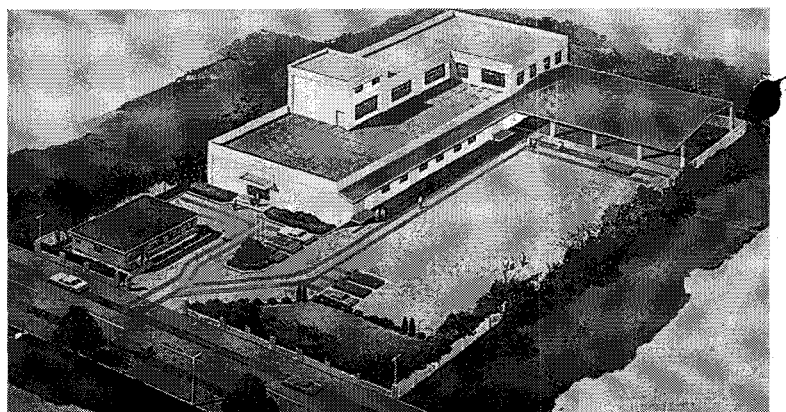
**"벌꿀전문 생산자단체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국내 벌꿀 도매시장 본격 진출**

<문의처>  
032-816-2741~3

- 1. 모든 농축산물은 도매시장이 있는데 벌꿀도매시장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다 국내 최초로 위탁물건을 팔아주는 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 2. 전국 각지에서 400여명의 조합원이 생산한 벌꿀을 한 곳에 보관하여 탄소동위원소 검사장비 및 소분에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벌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기업체에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1,000여드럼 이상의 꿀을 확보하여 초롱 및 드럼꿀 공급과 농축 및 소분포장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탄소동위원소 측정으로 -23 이하(100% 순수한 꿀에 해당)로 통과한 벌꿀만 수매·비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수분 20%이하의 벌꿀을 다량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취급품목 =  
■ 초롱꿀 ■ 드럼꿀 ■ 기타농산물 ■ 봉기구일체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본사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0-61 ☎(02)231-9856~9 / 공장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88-15 118블럭5롯데 ☎(032)816-2741~3

〈4면에서 계속〉

양곡관리제도는 WTO협정에 따라 매년 축소되고 있는 현행 추곡 약점수매중 농협차액수매방식을 용자수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용자수매는 정부중심이 아니라 최근 쌀주산지에서 활발한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RPC등 민간업체가 수행하며, 쌀값 계절진폭의 충분한 보장으로 농업인들이 쌀값 불안을 덜어주고 RPC등 용자업체도 안정적인 원료확보와 브랜드쌀 판매가 촉진되어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와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쌀 보리 등 정부양곡 관리를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일원화하여 인력예산절감은 물론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의 비교역적,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강조됨에 따라 99년부터 유기농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중으로 관련 법령정비를 포함한 세부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WTO차기협상에

대비하여 UR농산물 협상결과 평가와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차기 농산물 협상대체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여건개선으로 가고싶은 농촌을

최근 시중금리 및 농자재가격 상승, 농산물소비 위축 등으로 농업경영 및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우선 합리적인 농어가 부채대책 강구를 위해 농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부채협의회 합의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농어가 부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가의 어려움, IMF 경제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부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공장 및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농지규제완화 등 시책을 추진하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정적 계획적 영농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교육 의료 등 복지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강화하여 돌아

가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산림환경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전 국토의 65%(약 645만ha)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이 베푸는 혜택은 다양하고 크므로 우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국내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림경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임업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육림사업을 전개하여 치산녹화기에 심은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국내 자원만으로는 목재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 안정적인 산업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 조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산림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하고 기존 임도시설의 유지보수 강화 등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주소득증대를 위해 밤, 표고, 야생화등 단기 소득임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국산재의 신수요를 창출하고 간벌재 활용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또한, 산림의 환경 공익기능 증진 및 고유생물자원 보전에도 중점을 두어 산림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부응하여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 수련장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생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야생동물관찰원을 조성하고 수렵장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야생조수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백두대간을 축으로 천연보호림 지정 확대하고,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설립하여 산림식물자원의 보전 관리의 중심센터로 육성하며 지방수목원 확충으로 고유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토록 한다.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형태로

우선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영농오염원 경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기술 확산을 위한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99 : 16개소) 계획등을 수립 추진하고,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추진하며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 확산등으로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 및 수질개선사업 실시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전한 농산물생산 및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비유질감형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환경농산물 판매장 확충 등 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사용중인 환경농업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등을 통해 민간토착기술을 현대화하는 등 환경농업 자재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제공 : 농림부 농업정책과〉

자동먹이통 및 각종 양봉기구 특허등록, 출원품 생산업체, 봉봉원, 생산품목 및 가격

- ▶벽걸이자동먹이통(5,000원)=벌통을 열지않고 밖에서 먹이 유입상태와 벌이 먹이먹는 상태를 볼 수 있다.
- ▶바닥자동먹이통(6,000원)=먹이통을 소비 바로 밑에 설치할 수 있고, 벌통을 열지 않고 간단하게 먹이 양과 먹이실 넓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양을 할 수 있다.
- ▶자동수위조절기(2,000원)=여러 형태의 통이나 그릇에 본제품을 부착 또는 호스를 연결하면 물이나 액체의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합판으로 된 광식사양기에 호스만 연결하면 자동먹이통으로 변환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분봉열방지창(2,000원)=벌통에 창을 내면 벌이 nk수천마리 자유로히 벌통 밖과 안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어 환기와 습도조절이 용이해 분봉열 방지에 좋고, 항상 강군으로 벌을 관리할 수 있어 여러 질병예방에 좋으며, 특히 이동할 때 벌들이 안정감을 갖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아 열에 받혀 죽거나 스트레스에 의한 수명이 단축되지 않아 봉산물 다수확에 큰 도움을 주며, 이동한 후에는 발판으로, 봄벌 기를 때는 화분떡 급이용으로 좋다.
- ▶로알제리다수확틀(1,100원)=소비에 왕관을 부착할 수 있어 생산성을 대폭 높힐 수 있다.
- ▶광식수동먹이통(제작중)=기존의 수동식광식사양기와 크기나 모양이 같지만 벌이 빠져죽거나 헛집을 짓지 않으며 오래 사용해도 썩지 않는다.
- ▶광식자동먹이통1호(제작중)=위 광식먹이통에 조절기가 있어 벌통을 열지 않고 군세에 따라 5초 이내에 먹이양을 조절할 수 있다.
- ▶광식자동먹이통2호(제작중)=광식자동먹이통 1호와 기능은 거의 같지만 특징은 급수와 사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먹이통발판(제작중)=합판으로 된 광식사양기에 넣어 주면 벌이 빠져 죽지않고 헛집을 짓지 않는다.
- ▶걸림막(1,500원)=먹이통의 이물질 제거해 준다.
- ▶호스분배통(3,000원)=봉군 수에 따라 호스를 나누어 준다. 기타 벨브 및 부속품 일체

'봉봉원' ☎ (032)561-5802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3-8. 대표 장 봉 환  
온라인 번호 : (우체국)102715-0019058 / (농협)130033-52-196315

1등급 완성 소초광

장 점

- 소광규격이 정확하고 특히 옆대는 강도높은 목재 선별사용
- 비틀림이 없고 매선이 강하게 제작됨
- 소광 옆대를 2-3mm 넓힘으로써 꿀벌의 작업공간인 소광대 사이 충분한 거리 확보

=소량 주문도 환영, 전국 배달체계 구축=

(1등급)완성소초광	: 1조 1,800원
소 광	: 1조 800원
소 초	: 1장 800원

소광 도매전문  
최신 저온농축

※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무상교환 실시

청량양봉원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2리 489

농 협 : 793-02-168394  
우체국 : 700245-0106082  
예금주 : 이 정 호

전화 (0573)72-1480  
팩스 (0575)72-1470

양봉기자재 도·소매

IMF한파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양봉인에게 미약하나마 일익이 되고자 최상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상담 바랍니다.

◆ 취급품목

- 소상(10매무창)
- 소상(12매무창)
- 계상(10매용)
- 격리판
- 격왕판
- 사양기
- 소 광
- 소초광
- 기타 양봉자재 일절

◆ 제품의 특징

- ① IMF 무시한 저가격대
  - ② 내구성이 강한 자재사용
  - ③ 정확한 규격과 사용이 편리한 가벼운 무게
  - ④ 양봉가의 선호도에 따라 여러 자재로 제작
- ... 오동·백송·피·스기나무

명일양봉원

☎(0653) 856-1781

전북 익산시 영동동 752-1

대표 김 형 호

